

“국산 로봇착유기 도입 전, 미리 알아보세요”

농촌진흥청, ‘국산 로봇착유기 운영 묻고 답하기’ 책자 펴내

착유는 낙농가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38.8%를 차지하는 힘든 작업이다. 최근 경영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산 로봇착유기 도입을 희망하는 낙농가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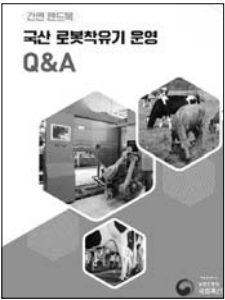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산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기 전 고려할 점과 적응 훈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한데 묶어 ‘국산 로봇착유기 운영 묻고 답하기(Q&A)’를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로봇착유기 일반사항 △설치·운영 전 준비 사항 △설치 후 운영 △긴급 대응(A/S)으로 구성했다.

로봇착유기 일반사항에서는 국산과 외국산 로봇착유기 구성, 설치·유지비용, 운영 방법 차이 등을 설명했다.

국산 로봇착유기는 외국산보다 약 40% 정도 저렴하고, 젖소도 대비율이 낮으며, 기능 선택 폭도 넓다. 반면, 외국산 제품은 현장 사용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설치·운영 전 준비 사항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고려할 점, 로봇착유기



설치 위치 선정, 기반 공사 종류와 비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사 구조 등을 고려해 착유기로 이동하는 젖소 동선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출입구(스마트게이트) 등 시설 추가도 고려해야 한다.

설치 후 운영에서는 젖소의 착유기 적응 훈련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유유 품질과 생산성 향상 관리 사항, 착유기 생산 데이터(정보) 이용 방법 등도 담았다. 젖소나 농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4일 정도 훈련하면 우군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착유에 응한다. 우유량과 체세포수를 안정화하는 데는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

책 파일(PDF)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농가마다 우사 구조와 사육 환경이 달라 국산 로봇착유기를 도입할 때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며 “이 책이 국산 로봇착유기 도입 농가와 도입 준비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 농가 방문 조사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는 현재 12농가에 13대가 보급됐다. 국산 로봇착유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지원하거나, 로봇착유기 공동 개발 업체(주)다우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2일, 2024년 자산관리 특화 점포로 신규 선정된 군산시지부에서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

NH농협은행 WM특화점포 군산시지부서 개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2일, 2024년 자산관리 특화 점포로 신규 선정된 군산시지부에서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로서 농협은행 WM(Wealth Management)부문 최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컨설팅 실무역량을 겸비한 고급인력이 배치돼 일반 영업점보다 전문적인 세무·부동산·연세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의 자리가 고객층은 수 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은행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

어 있다. 따라서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시중은행의 PB점포와는 차별화된 지역기반 자산관리 전문점포를 표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개소를 추가 선정, 총 69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WM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차원 집중 육성 중이며, 고객님의 자산증식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진정성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JB글로벌퀵송금’ 해외송금 이벤트 실시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최근 출시한 ‘JB글로벌퀵송금’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 송금수수료 면제 및 높은 환율 우대율을 제공하는 해외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미국으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송금수수료 전액 무료 및 90% 환율 우대 제공과 송금 가능한 모든 국가로 건당 5,000달러 이하로 송금하는 경우도 송금 수수료 전액 무료 혜택과 5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JB글로벌퀵송금’은 기존 송금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동남아 국가 등으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번 송금수수료 면제 및 우대환율 제공 이벤트를 통해 기존 송금대비, 더욱 좋은 혜택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는 시점에 고객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의 송금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혜택이 많은 당행의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에 늘 것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팜민진 베트남 총리 간담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전달 · IBK기업은행 베트남 법인 인가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 오후 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팜민진(P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 중소기업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베트남 측에서는 △팜민진 베트남 총리 △응우옌 쉐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에 참석한 중소기업대표단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여년 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베트남 주재원 비자 발급 애로 해소 △여행철 전력 공급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간소화 등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를 전달하고, 베트남 현지 정책 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

은행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현지법인의 조속한 인가도 함께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도 중소기업 투자포럼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88%가 중소기업이고,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 관계에 있는 베트남 팜민진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팜민진 총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과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와 연계한 한·베 투자협력포럼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NS홈쇼핑 · 글라이드 입점 설명 및 바이어 상담회 개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이은)이,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와 함께 익산형 일자리 참여·협력기업을 대상으로 NS홈쇼핑·글라이드 입점 설명 및 바이어 B2B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입점설명회에서는 빠르게 변화



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NS홈쇼핑 및 글라이드측에서 시장정보, 공동 마케팅,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점 프로세스 및 미디어커머스 정부사업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안내하였다.

참여한 업체는 총 14개사 35개 상품으로 NS홈쇼핑·글라이드 4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를 통해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나리친의 ‘포기김치’, ‘종각김치’ 품목과 에스디디의 ‘골창김’ 품목은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MID와 1:1 미팅을 통해 유통 플랫폼 입점을 위한 전략에 대해 컨설팅 받았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유망 중소기업과 연이어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주)에스이엔지와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조립식)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에스이엔지는 2021년 설립된 청년기업으로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특허등록과 출원 1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제작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투자액은 65억원, 신규 고용인원 1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주)에스이엔지의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종운 (주)에스이엔지 대표는 “저렴한 임대 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주)에스이엔지와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조립식)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 감사하다”라면서, “확장된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투자유치 누적액 10.2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